



# 음대소식

2010  
03  
Vol. 006

발행인: 정 태 봉 | 발행처: (우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획홍보실 TEL : 02)880-9320 | FAX : 02)882-9320 | 발행일: 2010년 3월 1일

Vol. 006 / March 2010

학장 인사말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s Letter 6호

### 목 차

- 01 학장님인사말씀
- 02 음대주최주요행사  
-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화요음악회  
2010학년도 봄학기에정행사  
-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 03 연구소 소식  
- 동양음악연구소 서양음악연구소  
오페라연구소
- 04 노스텔지어음악회  
- 음악회 리뷰, 권오성선생님 인터뷰
- 05 김성태선생님 연주회  
신규임용교수 인터뷰
- 06 국제콩쿨입상자 인터뷰  
- 신동훈 조강은 배지혜
- 08 음악대학단신  
- 이예규 명예교수님 별세  
- 피아노이카테미  
- 졸업식 학우수여식  
- 음악대학 동창회 소식  
- 카페 카키오픈  
- B동 이시소식  
- 음악대학인사
- 10 교수동정  
-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 12 - 콩쿨압상자  
- 서울음대발전기금  
- 서울음대 프렌즈

## Nostalgia Concert



지난 2009년 12월 13일 오후 4시, 우리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는 참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음악대학 59년 입학동기회, 그러니까 59학번 선배님들이 주최한 음악회였지요. 그 날 연주자로 출연했던 분들 모두가 59학번 선배님들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라 관객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걱정은 그냥 기우(杞憂)였을 뿐, 좌석이 모자라 맨바닥에 앉아 열심히 경청하는 사람들도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물러나 신경 쓰이는 연주는 사양하고 인생의 여유를 즐기는 일

에 시간을 전부 투자한다 하더라도 누가 뭐랄 사람도 없을 터, 그러나 선배님들의 연주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이 오히려 젊은 현역들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59년 입학동문 이연자 선배님께서 초대의를 글에 프로그램에 올리셨는데, 그 중 한 부분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1959년 봄

가슴 가득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한자리에 모여 입학한 저희들,

하나같이 빛나는 눈동자들, 젊음은 눈부셨습니다.

아, 그 때 그 시절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셨군요. 빛바랜 사진을 들여다보며 아스라이 멀어진 옛 기억들을 하나하나 더듬어가는 데에 그치는 감상(感傷)이 아니라 지금도 그 때 그 시절을 꼭 그대로 살고 계신 듯한 열정을, 무대에 선 선배님들의 모습에서 느낀 것은 참 당연한 일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음악대학 예술관이 문을 연 이래, 이런 감동을 준 무대는 아마 없었으리라는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Nostalgia Concert를 개최한 59학번 선배님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십시일반(十匙一飯) 정성을 모아 모교를 위해 발전기금을 전달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그 정성이 수천 수억 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정성이었습니다. 모교와 후배를 사랑하는 그 뜻이 너무나 숭고하여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선배님들의 그 뜻과 정성, 우리 음대로 하여금 더 높이 비상(飛翔)하게 하는 커다란 동력입니다.

59학번 선배님들께 온 마음으로 존경(尊敬)을 표합니다.

2010년 3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정 태 봉

# 음/대/주/최 주/요/행/사

2009. 9. 1 ~ 2010. 2. 28

## ▶ 성악과

- 9월 9일 특별강연 '예술경영' - 조동성 교수
- 10월 14~15일 성악과 세미나
- 2월 1~6일 David Gowland(영국 코벤트 가든 영아티스트 디렉터) 마스터클래스
- 2월 14~15일 성악과 세미나

## ▶ 작곡과

### STUDIO2021 (2009 AUTUMN SEASON) FESTIVAL "ACCENTO"

#### I. Clarinetist Eduard Brunner 초청 Lecture Concert

- 9월 12일(토) pm 1:00 예술관 콘서트홀 | Lecture Concert
- 9월 18일(금) pm 8:00 부천시민회관 | 관현악 연주회
- 9월 19일(토) pm 8:00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 실내악 연주회

#### II. Composer's Studio <이인식, 이홍석>

- 10월 13일(화) pm 6:30 예술관 콘서트홀 | Lecture Concert

#### III. Composer's Studio <Martin Bresnick>

- 11월 16일(월) pm 1:00 | Lecture
- 11월 17일(화) am 9:00 | Composition Lesson

#### IV. Performer's Studio <Violinist 벤자민 성 & Pianist 장지혜>

- 12월 14일(월), 16일(수) am 10:00 55동 203호 | Workshop
- 12월 18일(금) pm 7:00 예술관 콘서트홀 | Concert

## ▶ 기악과

### ▶ 피아노 전공

- 2월 17~21일 국제피아노아카데미

### ▶ 현악, 관악 전공

- 10월 24일 SNU Wind Ensemble 진주 이상근 음악제 초청연주

- 11월 14일 SNU Wind Ensemble 정기연주
- 11월 17일 SNU String Ensemble 정기연주
- 11월 26일 SNU Symphonic Band 정기연주
- 12월 12일 SNU Symphony Orchestra 정기연주

## ▶ 국악과

- 9월 15일 국악과 창설50주년 기념 제51회 정기연주회
- 9월 16일 국악과 창설50주년 기념 동문음악회 및 제 10회 국제학술회의
- 1월 25일~2월 28일 전공별 동계음악캠프
- 2월 21일~2월 28일 서울음대 국악연주단 일본공연

### 2009년 2학기 서울대생과 관악구민을 위한 서울대학교 화요음악회



## SNU TUESDAY CONCERTS

1회 | Korean Music Project

일시: 10월 27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2회 | 오스트리아 비엔나음대 학생 초청연주회

일시: 11월 3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3회 | 피아니스트 세복을 추모하며(Im Memoriam Gyorgy Sebok)

일시: 11월 10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4회 | 윤현주 교수와 제자들이 함께하는 "An Afternoon of Vocal Ensemble"

일시: 11월 17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5회 | SNU 앙상블 - Quartet TUNE, 라온 Quintet

일시: 11월 24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 2010학년도 봄학기 예정 행사

2010. 3. 1 ~

## ▶ 성악과

- 4월 중 성악과 세미나
- 5월 중 슈만페스티벌

## ▶ 작곡과

### STUDIO 2021 (2009 AUTUMN SEASON)

- 5월 중 Jack Browning(일리노이 주립대학교 교수) 마스터클래스
- 5월 27일 앙상블 초청 연주
- 6월 1일~18일 Workshop & Concert

## ▶ 기악과 피아노 전공

- 5월 17일 ~ 20일 슈만 페스티벌

## ▶ 기악과 현악, 관악 전공

- 3월 23일 SNU Symphony Orchestra 정기연주

- 5월 중 현악합주(SNU String Ensemble)
- 5월 중 관악합주
- 5월 12일 SNU Symphony Orchestra 정기연주
- 5월 13일 SNU Philharmonic Orchestra 정기연주
- 6월 5일 관악합주(SNU Wind Ensemble)
- 6월 16일 SNU Symphony Orchestra 정기연주

## ▶ 국악과

- 5월 중 전통음악연주회
- 4, 5, 6월 중 관악사 연주
- 5월 중 박물관 연주
- 5월 26일 국제학술회의 초청 연주

# 연/구/소/소/식

동양음악연구소  
서양음악연구소  
오페라연구소

## 〈동양음악연구소〉

**동양음악연구소 학술지 『동양음악』 발간**  
 지난 가을 동양음악연구소에서는 “The Traditional Children’s Songs of Asia”란 주제로 제10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의 전래동요에 대한 논의를 통해 21세기에 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동양음악연구소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고 새롭게 해석한 결과물로 『동양음악』 31집을 3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 〈서양음악연구소〉 http://wmri.snu.ac.kr

- 2009년 2학기 -

### 1. 학술대회

〈하이든, 멘델스존, 그리고 그 동시대〉 하이든 서거,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주최: 한국서양음악학회,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 연세대 음악연구소, 이화여대 음악연구소, 한양대 음악연구소

- 일시: 2009년 9월 19일

- 주제 및 내용

- 좌장: 장우형, 채현경, 권송택
- 질의: 지형주, 정경영, 정혜윤, 김유진, 이가영, 강현모
- 발표

이성률, 〈하이든의 교향곡에 나타난 악장 유형〉  
 김미선, 〈하이든의 가곡을 통해 살펴본 하이든의 음악어법〉

Itoh Tatsuhiko, 〈Transition of Joseph Haydn’s Reception in Japan: A Case of the Dissemination of the Sonaten-Album, Any Parallel between Japan and Korea?〉

송무경, 〈같은 가사, 다른 음악. 멘델스존과 슈베르트의 〈술라이카〉 비교분석 연구〉  
 배재희, 〈슈만의 피아노연곡에 나타나는 이중 조성구조〉  
 이미배, 〈슈만의 다성작법 학습〉  
 Marian Wilson Kimber, 〈Mendelssohn’s Other Concerto: the Changing Reception of the Piano Concerto no. 2, op. 40 in d minor〉  
 이남재, 〈멘델스존의 청소년기: ‘현악 교향곡’ 부터 ‘마태수난곡’ 까지〉  
 안소이, 〈멘델스존의 6개의 오르간 소나타, op.65, no.1-6에 사용된 이음줄의 이해와 아티클레이션과 프레이징의 적용〉  
 이내선/안소영, 〈동시대의 현악사중주에 공존하는 두 가지 성향. 고전적 낭만성 대 낭만적 고전성〉

### 2. Academia Musica

- (1) 최선화(UCAM) 초청 특강 〈스페인 음악이 서양음악에 미친 영향〉
- (2) 정혜윤(서울대) 초청 특강 〈음악과 정서-현대 영미 미학의 논의〉
- (3) Steve Bruns(Univ. of Colorado) 초청 특강 〈Musical Borrowing in the music of George Crumb〉
- (4) 이신우(서울대) 초청 특강 〈이신우의 바이올린 협주곡〉
- (5) 야코우(규슈대) 초청 특강 〈가부키: 그 배경과 미학〉

### 3. Lecture concert

- (1) 존 로빈슨(튀티스트) 강연 및 연주 〈르네상스 튀티 음악〉

### 4. 정기학술지 “음악이론연구” 14집 발행(한국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 09. 12. 15 발행

- (1) 학술논문  
 김미옥, 〈화성법과 대위법의 결합이론에 대한 역사적 고찰〉  
 김성혜, 〈‘터키 행진곡’에서 ‘라이언 킹’까지: 소리로 재현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단상〉  
 손민정, 〈대중음악의 음악교육학적, 음악학적 접근: 대중음악의 대학교과를 중심으로〉  
 양은주-김선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실태 분석〉

정이은, 〈‘가니메드’의 재해석: 슈베르트의 op.19의 재구성〉  
 정희원, 〈숨겨진 구조: 헤프코스키와 다르씨의 소나타 이론을 적용한 베토벤 ‘영웅교향곡’의 제시부 분석〉

### (2) 비평

강지영, 〈독일 음악학회 참관기〉  
 이장직,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음악사 주요작품 연구시리즈 IV 보고서〉

### 5. 단행본 출간

- (1) 주대창, 〈베토벤 교향곡 제9번〉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 작품 연구시리즈 I
- (2) 오희숙, 〈쾨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 작품 연구시리즈 II

### 6. 연구 보고서

강현모,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

## 〈오페라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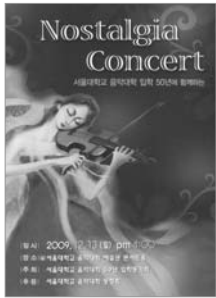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오페라연구소는 서울시 오페라단과 연계하여 방학기간을 통해 나눔오페라를 공연하였다. 공연하는 작품으로는, ‘세빌리아의 이발사’, ‘리콜레토’, ‘라 트라비아타’,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이며 음악대학 성악과 학생들이 주역 및 조역을 맡았다.

일시: 7월 8일, 10일, 14일, 25일, 26일/  
 9월 8일, 10일, 17일, 21일, 23일, 30일  
 장소: 관악구청, 송파구청, 마포구청, 종랑구민회관, 보성여고, 송곡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서울성심여자고등학교, 대일관광디자인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등

- 11월 19일~22일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세종대극장  
 서울시립오페라단 정기공연 오페라연구소가 도움
- 11월 12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연구소 주관, 서울시립 공동 주관
- 12월 12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 2월 5일~6일  
 운명의 힘 울산공연
- 2월 19~20일  
 세빌리아의 이발사/꿈의숲 아트센터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입학 50년과 함께하는

## Nostalgia Concert



지난 2009년 12월,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노스텔지어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연주회는 음악대학 59년 입학동기회 주최로 열린 것으로 50년 전 동기생들의 추억을 되살리고 후배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기회로 삼고자 기획되었다. 음악대학 59년 동기생으로 구성된 10여 명의 연주자들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솔로와 앙상블을 훌륭하게 연주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배가 전해주는 옛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연주는 신수정 전 음대학과 이재숙(서울대 명예교수), 조풍상(세종대 명예교수), 현민자(연세대 명예교수), 박성원(연세대 명예교수)님들을 비롯하여 현재에도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10여 명의 59학번 동기들로 이루어졌다. 테너 최조웅, 황철, 유충열, 조풍상, 박성원의 독창과 신수정의 피아노 독주, 이재숙의 가야금 독주, 그리고 노경숙, 현민자, 신수정의 피아노 트리오는 그들의 연배를 느끼지 못할 만큼 열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울음대 동창회 명예회원인 가수 조영남씨가 특별출연하였다.



본 연주회에 참석한 동창들의 호응은 매우 컸다. 예술관 콘서트홀의 좌석이 모자라 서서 보는 관객도

많았으며 매 연주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연주회를 보는 후배들 입장에서도 선배들을 보며 음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59년 입학동기회는 콘서트 개최 후 음악대학에 발전기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하는 그들의 마음이 전달된 것이다.

음악대학 59학번 동기들의 입학 50주년을 기념한 이번 노스텔지어 콘서트는 5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선후배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옛 것을 추억하고 향수에 젖어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50년이 지난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음악회였다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뜻 깊은 연주회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INTERVIEW>

#### ■ 권오성

- 1959년 서울대 음대 입학 1963년 졸업
- 196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입학 1966년 졸업
- 한국중양연구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문학 박사
- 국무총리표창(1975년), 옥조근정훈장(1972년) 수상
- 현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한국국악학회 고문, 아시아태평양 민족음악학회 회장

#### 1. 이번 노스텔지어 콘서트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작년 여름에 음대 59년 동기들과 만나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여자학생보다 남자 학생의 비율이 더 많았던 때였지요. 현재 각자의 생활이 있어 다 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후배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마침 2009년이 59년에 입학한 우리에게도 입학 5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이것을 기념하는 무엇인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소장하고 있는 여러 음악자료들을 기증할까도 했었지만 그보다는 발전기금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동기를 중심으로 연주회를 열어서 더 많은 동창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지요.

장소도 굳이 다른 곳에서 할 필요 없이 서울대학교에서 하면 모이기도 쉽고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번 노스텔지어 콘서트는 59년 동기생들이 옛날을 기리는 음악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음악회를 준비하시면서 기획이나 홍보 등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텐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요?

제가 음대를 다닐 적에 학생회장을 맡았던 것이 조금 연관이 되어 이번 음악회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에서 열린 학술발표 때

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실제적인 업무는 테너 조풍상 선생님이 많이 해주었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음악회 프로그램을 제작, 홍보하는 등 많은 업무를 하였지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이러한 전례가 없는 것 같아서 막막하기도 했지만 주변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특별히 어려운 점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 3. 마지막으로 음악대학 동창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런데 세계 속에서도 최고인가를 생각하면 100% 수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며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걸음씩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면 옛날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커리큘럼을 시도하는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변화에 도전하는 것은 교수님들보다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만이 갖는 패기와 도전정신으로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음대생이라고 너무 음대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술분야인 연극, 미술, 무용 등에도 관심을 갖다보면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예술분야의 친구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새로운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것이지요.

또한 IT강국답게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음악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선배와 후배 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동창회 블로그의 활성화라든지, 교내신문을 e-book으로 만든다든지, 꼭 디지털이 아니더라도 아날로그를 잘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매일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성 없이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기가 바뀌었고 앞으로 또 빠른 속도로 바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서울대가 앞장서서 리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음악대학 59년 입학동기회는 소중히 모은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왼쪽부터 정태봉 학장, 조풍상 세종대 명예교수, 신수정 전 음대학과장, 권오성 한양대 명예교수)

# 요석(樂石) 김성태 박사 백수기념음악회

- 음악80년 기념 공연 -



지난 2009년 11월, 세종대극장에서 김성태 명예교수의 '요석(樂石) 김성태 박사 음악 80년 기념 공연'이 열렸다. 이번 공연은 김성태 명예교수의 80년 음악인생과 100세 생신을 송축하는 것으로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제된 그의 음악을 재조명하며 동시에 앞으로

로도 더욱 깊이 있는 음악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김성태 명예교수는 연희전문학교(1931~1935)와 일본 동경고등음악학교(현 동경국립음악대학, 1935~1939) 작곡부 졸업 후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에서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1969년 연세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대한민국 문화훈장 대통령장, 대한민국 홍조소성훈장, 대한민국 예술원 예술상 등을 수상하였다. 1946년에는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약 30년 동안 교수직에 있었으며 9년 동안 음대 학장직을 맡기도 했다(음대 2대 학장). 더불어 1954년부터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있으면서 91년에는 2년 동안 회장직을 맡았다. 그리고 1979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며 모교의 발전에 끊임없이 기여하고 있다.

이 음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1부에서는 임현정 교수의 지휘로 서울대 음악대학 오케스트라가 'Korean Capriccio for Orchestra(1994)'를 연주하였으며 박현재, 김인혜, 윤현주, 김성길 교수가 김성태 작곡의 가곡들을 연주하였다. 특히 2부에서는 교성곡 '비바람 속에(1960, 모운숙 작사)'가 연주되었는데 음악대학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약 150명과 함께 윤현주, 김성길 교수가 솔리스트로 참여하여 엄청난 스케일의 웅장한 곡상을 표현했다. 이는 음대 교수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주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김성태 박사의 음악을 2시간정도 되는 한 회의 음악회 안에 모두 담아내기란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기회는 그의 음악인생 80주년을 기념하고 정리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에 충분했다.



### ■ 김성태 박사

- 연희전문학교 졸업
- 일본 동경고등음악학교 작곡부(현 동경국립음악대학) 졸업
-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대학원 수료
- 연세대학교 명예문학박사 학위받음
- 대한민국 문화훈장 대통령장 수훈
- 대한민국 홍조소성훈장 수훈
- 대한민국 예술원 예술상 수상
-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 3.1 문화상 예술상 수상
- 5.16 민족상 예술상 수상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학장 역임
-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역임
-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 신규임용교수 INTERVIEW

연광철 교수  
양경숙 교수

새색시의 발걸음처럼 다가온 봄비가 촉촉하고도 시원하게 관악을 품은 3월, 음대는 이제 막 들어온 새내기 대학생들의 설레임과 풋풋함으로 가득하다. 싱그린 캠퍼스에서 새로이 음대에 부임하신 연광철 교수님과 양경숙 교수님을 인터뷰를 통해 만나보았다.

### ▶ 성악과, 베이스 연광철 교수 임용



1993년 플라시도 도밍고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 음악계에 이름을 알린 연광철씨가 서울음대 성악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1996년 지휘자 바렌보임의 권유로 바그너 오페라의 성자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데뷔한 뒤 2008년 100회 출연의 기록을 세웠다. 작년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가운데 3개 배역을 동시에 거머쥔 연광철 교수는 1994~2003년 베를린 슈타츠오페라극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획득하였다.

### 1. 서울대음대에 부임 후 느끼신 학교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훌륭한 인재들이 저명한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교과과정과 프로그램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2. 서울대음대에서 꼭 해보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무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 3. 마지막으로 서울대음대 학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서양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단지 기교적인 면에서만 그들의 음악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철학, 문학, 미술 그리고 그 시대의 종교까지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하며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무대를 꿈꾸며 계획하는 우리들에게는 무대로 나서는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언제나 훌륭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매번 최선의 노력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 ▶ 국악과, 해금 연주자 양경숙 교수 임용



국립국악원에 30여 년간 재직하며 연주 활동을 하던 양경숙씨가 서울 음대 국악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국립국악원에서 수석, 지도위원, 약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연주 활동과 음악지도를 해온 양경숙 교수는 국내 유수의 대학에 출강하여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해금연구회의 창립멤버로 해금음악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다.

### 1. 교수님께서도 본교를 졸업하시고, 그동안 거의 모든 시간을 연주활동에 쏟으시며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여성최초로 약장을 역임하셨던 경력도 가지고 계신데요, 지난 시간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생활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근 30년간을 연주활동에 전념하다가 이제 학생들이 가르치는 자리로 오게 되었는데, 학교시설도 많이 바뀌고,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겨서 좋습니다. 또한 연주하며 강사로 활동하던 시절과는 느껴지는 책임감의 무게가 많이 다르고 지금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 기쁩니다.

### 2. 교수님만의 교육철학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국악을 전공함에 있어서 학교 공부 이외에도 시야를 넓게 보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학교에서의 생활도 즐기며 다른 분야의 예술 작품, 예를 들어 국내외의 문학작품이나 오페라, 연극, 미술, 뮤지컬 등의 다양한 장르를 폭넓게 경험하며 소통과 영감의 원천을 많이 만들어 놓을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 3. 마지막으로 음대 학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 기쁩니다. 서울음대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수준의 학부이기에 공부를 함에 있어 모두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면 좋겠습니다. 본래 선조들이 음악을 하는 자세는 즐기 위함도 있지만 정신과 인격수양의 목적이 주가 되었었습니다. 서울대음대 학생들은 실력도 최고로 갖추어야 함은 물론 이러한 내면의 모습도 아울러 만들어 나가며 미래의 지도자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 국제콩쿠르 입상자 INTERVIEW

신동훈(작 곡)  
조강은(피아노)  
배지혜(첼 로)

작곡이나 연주 등의 예술분야를 객관, 또는 계량화된 기준에 맞추어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예술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난 듯 하지만 음악콩쿠르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이며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음악가로서 앞으로 더 활동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된다. 특히 국제 콩쿠르는 세계 여러 사람들의 음악을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권위 또한 높아서 음악도들에게는 선망의 무대가 된다. 지난 학기동안 많은 서울음대 재학생 및 동문들이 이러한 국제 콩쿠르에 입상하여 기쁜 소식들을 전하였는데, 이번 음대소식지에서 그들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Q1. 이번 국제콩쿠르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 Q2. 국제 콩쿠르와 국내 콩쿠르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 Q3. 콩쿠르를 준비하면서 겪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 Q4. 평소에 슬럼프를 극복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나요?
- Q5. 앞으로 오르고 싶은 무대나 다른 목표가 있는지요? 그리고 국제콩쿠르를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 신동훈(작곡)  
ANM (Auditorio Nacional de Madrid, Spain) Composition Contest / First Prize

1. 솔직히 말하자면, 애초에 이 콩쿠르를 노리고 작곡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Violin Concerto의 작업을 마친 후 Concerto의 출품이 가능한 콩쿠르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찾아낸 이 콩쿠르가 제가 쓴 편성에 적합하며 또 부상으로 돌아오는 혜택 또한 근사해서(1위 수상 곡은 스페인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2011-12년 유럽 투어에서 정규 레파토리로 연주됩니다.) 출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휘자, 솔리스트, 연주자의 태도가 한국에서 연주를 하며 느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작곡가를 학생이 아닌 프로로써 대우해 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나이 제한이 없는 프로페셔널 작곡가들을 위한 콩쿠르여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요). 또한 적어도 유럽은 제가 느끼기에 말보다는 음악이 앞서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3. 매 순간이 기억에 맺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등급 연주자, 지휘자 또 연주단체와 함께 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령 지휘자의 경우, Ensemble Modern의 부지휘자인 Nacho de Paz가 초청받아 컴페티터들의 곡을 지휘했는데, A2 용지로 제 악보를 제본하여, 형광펜으로 빼곡히 칠하여 공부해 온 모습은 심지어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Gerard Grisey가 스펙트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만든 Ensemble L'internaire의 악장이자 저명한 현대음악 전문 Violinist인 Anne Mercier가 제 곡을 연주한 것도 기뻐했습니다. 그녀 또한 마드리드로 오기 전 완벽하게 악보를 읽어 와서 제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지휘자와 솔리스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제 음악을 좋아해 주어서 좋았습니다(연주자가 음악을 맘에 들어 하는 것은 그 음악이 'make sense' 하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3. 매순간이 슬럼프고 매순간이 또한 슬럼프가 아닌지라 특별히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저는 오선지 위에 음들을 새기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4. 오르고 싶은 무대가 있다 하여 다 오를 수 있는 일도 아니기에 그런 허황된 무엇보다는, 앞으로 쓰고 싶은 곡들에 대하여 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장 쓰고 싶은 곡은 Cello Concerto입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히 없는 듯합니다. 어차피 저든 다른 사람이든 살아가는 모양새는 다르기 마련이고 또 쓰고 싶은 음악도, 또한 성장해 나가는 과정도 다르기 마련일 테니까요.



▶ 조강은(피아노)  
The 5th China Shanghai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 5th prizewinner  
The 11th International Chopin Piano Competition in ASIA(General, College Category) / 2nd prizewinner

1. 맨 처음, 교수님과 국제 콩쿠르 사이트를 통해 콩쿠르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제가 참가하기

바로 전 콩쿠르에서 같은 지도 교수님을 사사하고 있는 선배 언니의 입상 소식을 듣고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콩쿠르에 참가하게 되면서 걱정과 심적 부담이 수반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장형준 교수님께서 많은 격려와 가르침을 주셔서 콩쿠르에 참여하고 입상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 30분 program, 2차 60분 program, 3차 협주곡 한 곡이라는 많은 레퍼토리를 깊이 있게 공부하며 다듬는 시간이 콩쿠르 준비의 대부분이었으며, 콩쿠르에 임박하여 교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무대 리허설이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 국내 콩쿠르 중에서도 많은 레퍼토리를 요구하는 콩쿠르가 분명 존재하지만,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콩쿠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방 여럿과 경쟁하는 것만이 아닌 리사이틀을 하는 느낌, 그 상황이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다양한 국적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연주를 하고, 참가자뿐만 아니라 심사 위원, 콩쿠르 관계자 등이 함께 파티를 하는 것 또한 국제 콩쿠르에서 느껴 볼 수 있는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3. 사실 국제 콩쿠르에 참가하는 때 순간마다 기억에 남는 일이 많습니다. 입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은 저에게 있어 값진 경험입니다. 호주에 갔을 때 제 연주가 끝나자 전부 일어나서 '브라보!'를 외치며 갈채를 보내주시고 너나 할 것 없이 무대 밖으로 나와 사인을 요구해 주셨던 청중들과의 소통, 상하이 국제 콩쿠르의 파이널 무대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베토벤 콘체르토 3번을 연주하는 내내, 연주를 다 끝나고 났을 때의 그 가슴 벅차고 감사한 기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4. 저의 경우, 연습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슬럼프가 왔을 때는 직접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연습을 합니다. CD를 듣는다거나, 악보를 보면서 떠올려 가며 연습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당연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게 있어 이러한 방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슬럼프가 왔다 하더라도 꾸준한 연습,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항상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꾸고, 노력하는 것은 수반되는 고통과 인내와 더불어 가슴 벅차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국제 콩쿠르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인데, 저와 마찬가지로 국제 콩쿠르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항상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또 다른 국제 콩쿠르에 도전하며 배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밖에 리사이틀이나 협연, 실내악 등의 연주 기회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 배지혜(첼로)

Isang Yun Competition / 2nd prize

1. 저는 어려서부터 대회를 통해 실력을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1학년 때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브람스 콩쿠르에서, 2학년 때 동아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했는데, 국제 콩쿠르에 참여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윤이상 콩쿠르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직접 통영에 내려가 관람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연주를 보면서 '나중에 나도 저 무대에 서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2. 말 뜻 그대로입니다. 국제 콩쿠르에는 세계 각국의 나라에서 연주자들이 참여하고, 여러 나라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러 옵니다. 두 가지 모두 치열한 경쟁을 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국제 콩쿠르에서는 훨씬 다양한 연주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곡이 더 많고 다양한데, 각 단계마다 30~40분 이상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를 하고 연주를 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기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콩쿠르기간동안 방에서 바로 통영앞바다가 보이고 공기가 좋아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가족들도 구경차 왔었는데 하도 분위기가 좋아서 저까지 잠시나마 콩쿠르라는 것을 잊고 들떴던 것이 생각납니다. 콩쿠르기간동안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친해지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 집중이 안 되거나 힘들 때는 잡지책을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친구랑 수다를 떠는 등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잘 안 돼서 화나던 마음이 진정돼서 차분해지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연습을 할 때 좋은 컨디션과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스트레스를 풀고 난 뒤 다시 산뜻한 마음으로 연습을 시작합니다.

5. 앞으로 많은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콩쿠르에도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의 연주를 접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콩쿠르에 참가하고 나면 성숙해지는 저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국제콩쿠르를 준비할 때는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가지기가 필요합니다. 그 대신 무대에 나가서 연주할 때는 부담을 갖지 말고 최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무대를 즐겨야 합니다.

# 음악대학 단/신

이혜구 명예교수 별세  
 피아노아카데미, 졸업식, 학위수여식  
 음악대학 동창회 소식  
 카페 카그 오픈  
 음악대학 인사, BK동 이사소식

## 고(故) 만당(晩堂) 이혜구 명예교수 타계

지난 2010년 1월 30일 향년 101세로 국악계의 거목 고(故) 만당(晩堂) 이혜구 명예교수가 숙환으로 타계했다. 영결식은 2월 3일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별맞이터에서 권오성 한양대 국악과 명예교수(대한민국 예술원 회원)가 장례 위원장을 맡고 국립국악원 박일훈 원장이 집행 위원장을 맡아 한국음악학의 정립과 발전·세계화에 평생을 바치고 무수한 제자를 길러낸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가족과 제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악인장으로 엄수됐다.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영결식은 윤미용 국악방송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황준연 교수가 고인의 약력 소개를 한 후 고인의 육성(2008년 국립부산국악원개원 축하메세지)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국립국악원장 박일훈 대독)과 권순형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의 조사, 이재숙 서울대 명예교수의 고별사가 이어졌다. 한명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은 ‘청사에 빛날 만인의 사표/만당 사부님/당신께선 진정 높은 산이셨습니다/학문의 골은 깊고/덕망의 뿔뿌리 높아/한결같이 세상 사람 우러러 흠모하던/...’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영전에 바치며 생전 국악계의 큰 스승이셨던 고인을 추모했다. 가족과 제자들은 고인이 생전 즐겨 들었던 ‘이수대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영전에 차례로 헌화하며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고인의 유해는 영결식 후 선산이 있는 충남 천안시 목천읍 도장리에 안장되었다.

## 고(故) 만당(晩堂) 이혜구(李惠求) 박사

1909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 만당 이혜구 박사는 경성제국대 영문학과 재학 시절 “아악은 매우 귀중한 것이니 배워보라”는 일본인 교수의 권유로 조선 왕립 음악기관의 후신인 이왕직악부에 드나들며 국악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32년 경성방송국 프로듀서로 취직해 국악을 담당하게 된 그는 국악을 체계화해야겠다는 사명



감을 갖고 국악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해방 후 공보부 방송국장을 거쳐 47년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임용된 그는 59년 정규 대학 과정 중에는 최초로 서울대 음대에 국악

과를 신설하며 국악의 대학 교육 시대를 열었다. 그는 훗날 “국악 분야가 정말 황무지 같았지만 그때그때 문제를 푸는 식으로 언제나 연구를 했다. 국악을 알아보고 더 욱 분발했다”고 회고했다. 이후 74년 정년퇴임 할 때까지 이재숙 서울대 명예교수, 권오성 한양대 명예교수 등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그는 1970년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에 위촉되면서 영문으로 한국 음악 총서를 만들고 81년 국제민속음악학회 한국 대회를 유치하는 등 세계에 국악을 알리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한국음악서설’(1967년), ‘한국음악논고’(1995년) 같은 저서를 통해 국악 이론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98년에는 ‘이혜구학술상’을 제정해서 후학 양성에도 애썼다.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한국음악이론’(2005), ‘만당 음악편력’(2007) 등 저서를 내놓으며 연구와 저술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어 91년 제정된 제1회 ‘자랑스런 서울대인’에 선정되었으며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퇴임 후 지금까지 연구와 집필 활동을 이어왔다. 실제로 만당은 지난해 말 국립국악원의 논문집에 논문을 발표했으며 타계 직전까지 국악 역사와 이론을 집대성한 ‘한국음악사’를 집필 중이었다.

국악을 학문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시켜 한국 음악학의 태두(泰斗)로 꼽히는 고 만당 이혜구 박사.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는 한편 국악을 세계 음악계에 알리는 데에 앞장선 그가 있었기에 국악이 오늘날과 같은 위상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제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선생님은 도외시되던 국악을 논리화, 체계화해 학문으로 정립해 오늘에 이르게 한 분”  
 “선생님은 한국음악을 국

했다. ‘그 시대의 음악을 해야 한다’, ‘새로운 음악을 하라’고 항상 당부하며 크로스오버 국악에도 적극적으로었던 열린 마음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 이재숙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양 3국 음악 가운데 가장 신명에 가득 찬 우리 음악의 예술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선생님의 음악관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논문을 기고하고, 집필 작업을 쉬지 않은 것은 국악에 대한 선생님의 열정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 준다”

- 권오성 한양대 명예교수

“선생님은 우리 국악 문화 발전을 위해 초지일관 일생을 아낌없이 바쳤다”

“아름다운 시기에 국악의 역사적 가치를 발견해 국악의 학술적 토대를 구축하고, 국악교육의 기틀을 만들어 국악이 단절되지 않고 전승될 수 있도록 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리 것의 가치를 모르던 시기, 선생님은 예술적 감성과 학문적 날카로움으로 가난한 국악학자의 길을 택해 내내 그 길만을 걸어왔다”

“청렴한 선비 정신으로 국악학 연구의 발전을 마련하고, 세계에 한국 전통예술의 높고 귀한 가치를 널리 알린 고고한 선생님의 향기는 곳곳에 남아있을 것”

- 권순형 대한민국예술원회장

## <빈소에서>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에는 이재숙, 권오성 등 제자를 비롯해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성찬경 대한민국 예술원장, 황병기 예술원 회원,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 박범훈 중앙대 총장, 윤미용 국악방송 이사장, 정태봉 서울대 음대 학장, 안형일 전 국립오페라단장, 박일훈 국립국악원장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화환을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의 생전 모습>**



- 1982. 5 한일공동고려악연구회(도교)  
- 왼쪽부터 이해구, 장사훈, 권오성



- 1994. 11 제1회아시아태평양민족음악학회 학술대회및전통음악축제(국립극장및국립국악원)  
- 왼쪽부터 이병원, 미상, 이해구, 미상, 권오성, 진인평

**201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제 피아노 아카데미 개최**

지난 2월 17일~21일 음악대학이 주최하는 국제 피아노 아카데미가 열렸다. 국외 유명 음악대학 피아노전공 교수인 John O'Conor, Stewart Gordon, Michel Dalberto, Boaz Sharon과 서울음대 김형배, 김귀현, 신수정, 문익주, 장형준, 최희연, 주희성, 박종화, 라이커트 아비람 교수의 마스터클래스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최희연, 주희성 교수의 듀오 연주회가 개최되었으며 우리 음대에 재학 중인 한희준, 유세형의 주니어 조인트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삼익악기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20억 쾌척**



회장 김 종 섭  
(본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지난 학기 삼익악기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으로 20억을 쾌척하였다. 그동안 삼익악기는 음악대학에 현관LED, 현관 피아노탁자 등 여러 시설을 구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 바 있다. 이번 발전기금도 음악대학을 위한 용도로 지정되어 음악대학의 발전과 학생들의 기량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음악대학 동창회 소식**

우리에게 '그리운 금강산'으로 친숙한 최영섭 동문이 2009년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하였다. 최영섭동문은 가곡, 교향시, 칸타타, 오페라 등의 많은 작품을 작곡하였을 뿐 아니라 방송계, 음악교육계 그리고 작곡가 단체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제 64회 학위수여식**

지난 2월 26일 종합체육관에서 서울대학교 제64회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음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등 총 57명이 배출되었고, 음악대학 관악합주단(김영률 교수 지휘)의 연주와 박현재교수의 축가가 학위수여식장을 빛냈다.

**북카페 'Kag' 오픈**



지난 11월 음악대학 구내에 북카페 'Kag (Korea Artist Guild)'가 문을 열었다. 음악대학 교수, 강사, 학생, 직원 및 음악대학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 것이다. Kag에서는 커피를 비롯한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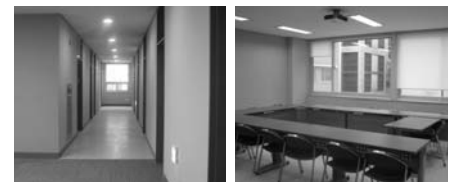
음료와 빵, 샌드위치, 케익 등을 판매한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책이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원플러그가 설치되어 있다. Kag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kaghall>에 가입하면 각종 이벤트와 음악회 등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220동 BK3 대학원 연구동 이전 소식**



220동 BK3 대학원 연구동이 완공되어 이 건물의 강의실과 연구실 일부가 음악대학에 배정되었다.(401~428호, 430~432호, 총32개실 1,162.91㎡) BK연구동은 현재 미술대학과 49동 예술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음악대학 외에 행정대학원, 생활과학대학 등 몇 개 대학, 대학원이 입주하였다. 우리 음악대학에서는 작곡과 교수들의 연구실, 작곡과 사무실, 동양음악연구소, 서양음악연구소, 전자음악실습실, 동창회 사무실, 석사과정연구실, 시간강사 및 박사과정연구실, 자료관 등이 새 건물에 자리를 잡았다. 기존의 연구실, 연구소 등의 29개실은 그동안 부족했던 실기지도실로 채워져 보다 다양하고도 넓은 공간에서 학생들의 실기연마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220동 BK3 대학원 연구동 내부 모습>**



- 연구실 복도                      - 강의실 모습

**음악대학 인사발령 현황**

- |             |                   |
|-------------|-------------------|
| 기획홍보실 조교    | 김혜영 (2010. 3. 1~) |
| 기악과 조교(피아노) | 손정현 (2010. 3. 1~) |
| 기악과 조교(현악)  | 홍새롬 (2010. 3. 1~) |
| 기악과 조교(관악)  | 서성현 (2010. 3. 1~) |

# 교수 동정 및 동문 소식

성악과, 작곡가, 기악과, 국악과

## 성악과

### 윤현주 교수, 메리 스크랜턴 100주기 추모음악회 연주

‘이화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시초인 ‘이화학당’을 세운 한국 근대 여성교육의 선구자 메리 F. 스크랜턴 여사의 서거 10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6일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추모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에는 피아니스트 이경숙 연세대 명예교수, 메조소프라노 윤현주 서울대 교수, 첼리스트 윤영숙 서울대 교수 등이 출연하였다.

### 박미혜 교수, 제2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여자 주역상 수상, 기념 음악회 연주

지난 12월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시상식에서 소프라노 박미혜 교수가 여자 주역상을 수상하였다. 이어 1월 16일에는 예술의전당에서 기념 음악회가 개최되었는데, 박미혜 교수는 이 무대에서 테너 이정원, 박선휘, 김도형, 한명원 등과 함께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리콜레토’, 푸치니의 ‘라 보엠’, ‘토스카’, 비제의 ‘카르멘’ 등을 연주하였다.

### 박세원 교수와 김인혜 교수,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공연

박세원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서울시오페라단이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을 지난 11월 19~22일에 걸쳐 세종대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이는 서울시오페라단의 2007년부터 시작한 ‘베르디 걸작 5선’의 완결편으로 무대와 연기에 ‘원작 그대로’를 강조하는 ‘정통성’이 돋보였다. 이 공연에서 소프라노 김인혜 교수는 비운의 여주인공 레오노라 역을 맡았다.

### 박현재 교수와 박미혜 교수, 마산시향 송년음악회 독창자로 참여

지난 12월 22일 테너 박현재 교수와 소프라노 박미혜 교수가 마산시립교향악단의 제126회 정기연주회인 2009 송년음악회에 참여하였다. 이 공연에서는 백진현의 지휘로 마산시립합창단과 순천시립합창단이 말러 교향곡 5번과 베토벤 교향곡 9번이 연주되었다.

## 작곡과

### 임현정 교수, 제4회 대원음악상 특별 공헌상, 제5회 강희대 시민상 수상

임현정 교수가 제4회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및 2009년 ‘제5회 강희대부천시민상’을 수상하였다. 임현정 교수가 상임 지휘자로 있는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2010년 슈만과 브람스의 교향곡 전곡 연주에 도전할 예정이다.

### 정태봉 교수, 우리노래 펼침이 가곡 발표, 이상근 음악제 교향시 ‘남강’ 연주

지난 11월 7일 ‘2009 음악가들의 창작공간-우리노래 펼침이’에서 정태봉 교수의 가곡 ‘떠도는 바람’, ‘나그네’가 연주되었다. 그리고 11월 26일~29일 경남문화예술회관(진주)에서 열린 이상근 음악제에서 정태봉 교수의 교향시 ‘남강’이 연주되었다.

### 김덕기 교수, ‘아람누리 마티네 콘서트’ 지휘

지난 2월 25일 ‘2010 아람누리 마티네 콘서트’ 첫 번째 음악회가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클라라를 향한 단 하나의 부르짖음’이라는 부제 아래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은 작곡가 슈만을 조명하며 김덕기 교수의 지휘로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평화방송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 이돈응 교수,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에서 작품 연주

지난 11월 29일~12월 3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한국전자음악협회

(KEAMS)가 주최하는 제16회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SICMF)가 개최되었다.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는 악기, 컴퓨터 음향, 영상, 무용 등이 어우러지는 전위적인 공연으로 음악과 테크놀러지가 어떻게 조우하고 결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12월 2일에는 이돈응 교수의 ‘i\_Marimba’가 연주되었다.

### 이신우 교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작품 발표

지난 9월 9, 16, 23, 30일 서울대미술관(MoA)에서 이신우 교수의 작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발표되었다. 연주뿐 아니라 공연장의 독특한 기하학적 구조에 설치미술 작품까지 합쳐져 현대 예술 특유의 공감각성이 표출되었다. 피아니스트 박종화 교수, 설치미술가 배정완 등이 참여하였다.

### 전상직 교수, ‘헛 눈물’, ‘4 Compositions with 3 interludes for string trio’ 연주

지난 2009년 9월 5일 한국예술가곡진흥위원회가 주최한 연주회에서 전상직 교수의 작품인 가곡 ‘헛 눈물’이 연주되었다. 또한 2009년 11월 10일 부암아트홀에서 열린 발표회에서는 전상직 교수의 ‘4 Compositions with 3 interludes for string trio’가 연주되었다.

### Roland Breitenfeld 교수, 사운드 디자이너로 연주회 참여

지난 2009년 9월 19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스튜디오2021 연주회에서 롤란트 브라이텐펠트 교수의 “Echo-Sidcho” (2008) for mezzosoprano and bass-flute가 연주되었다. 또한 2009년 12월 7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열린 TIMF양상블의 Steve Reich “City Life” 연주회에서는 롤란트 브라이텐펠트 교수가 사운드 디자이너로 참여하였다.

## 기악과

### 윤영숙 교수, 메리 스크랜턴 100주기 추모 음악회 연주

지난 2009년 11월 16일 윤영숙 교수는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한국 근대 여성교육의 선구자 ‘메리 F. 스크랜턴’ 여사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트리오로 연주에 참여하였다.

**김영률 교수, 2009 이상근 국제음악제 연주**

20세기 우리나라 음악계를 대표했던 천재 작곡가 이상근 선생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2009 이상근 국제음악제가 2009년 11월 28일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서울대학교 관악단은 김영률 교수의 지휘로 ‘목관5중주를 위한 희유곡 88 Op.83’, ‘그리운 금강산’, 로미오와 줄리엣 중, ‘아! 꿈 속에 살고 싶어라’ 등을 연주하였다.

**장형준 교수, 그랜드 피아노 콘서트 연주**

지난 12월 17일 ‘2009 그랜드 피아노 콘서트’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90명의 피아니스트가 출연하여 최대 6대의 피아노에 12명의 피아니스트가 동원되어 11개의 곡을 들려주었다. 특히 장형준 교수와 라이커트 아비람 교수, 피아니스트 박종훈은 스트라빈스키의 발레곡 ‘결혼’을 새로운 해석으로 연주하였다.

**최은식 교수, Viola Night 연주**

지난 10월 24일, 최은식 교수는 서울장천아트홀에서 세계적인 거장인 비올리스트 노부코이마이와 Viola Night 연주회를 열었다.

**최희연 교수, 피아노 리사이틀 개최**

지난 11월 20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최희연 피아노 리사이틀’이 개최되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한경진의 ‘바흐의 미사 中 우리에게 자비를 에 의한 파사칼리아’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리스트 ‘바흐 주제에 의한 환상곡과 푸가’, 바르톡의 ‘밤의 음악&사냥’ 등이 연주되었다.

**최경환 교수, 군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

지난 11월 12일 전북 군산 시민문화회관에서

에서 ‘군산시립교향악단 제88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유럽의 향기’를 주제로 바그너의 ‘탄호이저 서곡’,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등이 연주되었으며 최경환 교수는 테리헨의 ‘탐파니 협주곡’을 협연하였다.

**이경선 교수, 화음첼버오케스트라 및 독주회**

지난 11월 24일 제33회 화음첼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이경선 교수는 새로운 리더로서 이번 공연을 이끌었으며 ‘화음 프로젝트 Op.86 Back to the future’라는 제목으로 설치·회화·사진·비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가 함께 어우러졌다. 이경선 교수는 지난 10월 8일 금호아트홀에서 ‘코리안 바이올린 디바 시리즈’를 통해 독주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슈베르트의 ‘소나티나 D단조’, ‘환상곡 C장조’, 마르티누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세 개의 마드리갈’ 등을 연주했다.

**백주영 교수, 바이올린 독주회**

지난 10월 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교수의 독주회 ‘비르투오조를 꿈꾸며’가 열렸다. 피아니스트 이그낫 솔제니친과 함께 베베른, 베토벤, 바르톡, 파가니니, 슈베르트의 작품을 연주하였다.

**라이커트 아비람 교수, 피아노 독주회**

지난 11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피아니스트 라이커트 아비람 교수의 피아노 독주회가 열렸다. 이 독주회는 그가 서울대 교수로 부임하여 한국 청중에게 건네는 첫 인사의 뜻이 있는데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소나타 Bb장조’, 슈베르트 ‘피아노소나타 Bb장조’, 그리고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을 연주하였다.

**박종화 교수,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스페셜 콘서트 연주**

지난 11월 4일 예술의전당에서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주최로 제6회 두오협회 스페셜 콘서트가 열렸다. 이 공연에서 박종화

교수는 아비람 라이커트 교수와 함께 리게티의 ‘Three pieces for two pianos’를 연주하였다.

**국악과**

**정대석 교수, 동보악회 정기연주회 연주**

정대석 교수는 지난 11월 11일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열린 부산동보악회 정기연주회 ‘큰 나무의 이야기’에서 정대석류 거문고 산조 독주를 하였다. 한편, 11월 26일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거문고연구회 동보악회 정기연주회에서는 ‘거문고로 그리는 풍경’을 전곡 작곡 및 지휘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제812회, 815회 KBS 국악한마당에 출연하여 거문고 산조와 ‘수리재’를 독주하였다.

**이지영 교수, ‘가야금연주회-다름슈타트에서 음악극을 만나다’**

지난 12월 7일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에서 가야금병창보존회 정기연주회 ‘향음재’가 열려 이지영 교수가 강정숙, 김청만, 강길려 등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인간문화재 및 그 이수자들과 함께 연주에 참여하였다. 이 공연에서는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 17현금과 25현금으로 들려주는 가야금 3중주 ‘단모리’ 등 정통 가야금 연주를 비롯해 크리스마스 캐럴 모음곡, 국악가요, 그리고 다양한 병창곡들이 연주되었다.

**김승근 교수, 서울음대 국악과 동문연주회에서 작품 발표**

지난 9월 16일 국립국악원에서 서울음대 국악과 창립50주년기념으로 열린 제51회 동문연주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김승근 교수의 ‘국악기를 위한 5중주’가 발표되었다.

**임재원 교수, KBS국악관현악단과 협연**

지난 10월 15일 임재원 교수는 KBS국악관현악단 제183회 정기연주회(KBS홀)에서 협연하였다.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발전기금 모금 안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발전기금은 시설개선 및 모교 재학생 지원에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 음악대학 발전기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재원확보로 이어져 서울대학 음악대학 발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참여방법:** 참여신청서를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계좌번호:** 농협 079-17-065663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신한은행 100-023-845777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 **문의:** 음악대학 학장실 02-880-7900 /  
음악대학 기획홍보실 02-880-9320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02-880-5026, 871-8146  
/ fax. 872-4149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번지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228호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우151-818)

### <음악대학 회원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 제도 시행>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학생들이 학생입장에서 더 나아가 전문가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음악회에 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중들도 주어진 음악회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음악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뜻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Friends)' 라는 회원제도를 마련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는 문화예술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새로이 마련한 회원 제도이다. 회원에게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기획하는 음악회의 관람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의 회비는 음악대학의 교육, 연구 활동을 돕고 학생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며 음악대학에서 주최하는 음악회의 기획과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 **회원에게는**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음악회의 초대권 2매 및 음악회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음대소식지 우송
    - 프렌즈 회원 카드 배송
  - **회비**
    - 1년 회비: 10만원  
농협 079-01-469806(예금주: 서울대음악대학)
- ※ 가입신청에 관한 문의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획홍보실(02-880-932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콩쿨 입상 소식>

- | 성악과 |**
  - 49회 동아음악콩쿠르 남자부 1위 나건용(00) / 여자부 1위 황수미(04) / 3위 박소영(석사)
  - 제5회 세종음악 콩쿠르 남자부 2위 나건용(00) / 여자부 1위 황수미(04) / 여자부 3위 김주혜(06)
  - 이대웅 콩쿠르 1위 이윤경(05), 3위 한규원(01)
- | 작곡과 |**
  - 49회 동아음악콩쿠르 2위 박현상(07) / 3위 박지은(03)
  -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2위 김택수
  - International Composition Contest National Auditorium of Music, Spain 2009 1위 신동훈(05)
- | 피아노 |**
  - 중국 상하이 국제피아노콩쿠르 입상 조강은
  - 스페인 안도라 콩쿠르 1위 김고은(03)
  - 비스바덴 국제피아노콩쿠르 1위 양윤희
  - 49회 동아음악콩쿠르 3위 이민성(09) / 4위 한희준(09)
- | 관악 |**
  - 49회 동아음악콩쿠르 2위 조동현(클라리넷, 06) / 2위 이진아(플룻, 06)
- | 현악 |**
  -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2등 배지혜(첼로, 07)
- | 국악과 |**
  - 제29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대금 부문 은상 김대곤(07) / 가야금 부문 은상 이미리(05), 동상 이지연(06) / 거문고 부문 금상 이민영(07)
  - 서울가야금 경연대회 산조부문 장려상 이미리(05) / 산조부문 특별상 양수연(06) / 창작부분 최우수상 이지연(06) / 창작부분 우수상 박소리(02)